

네띠앙

사람이 그리울 때는 네띠앙으로 ...

#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네띠앙



**네띠앙은...**

네띠앙은 세상 속의 커뮤니티 도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메일과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정보 교류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네띠앙에는 20여개 이상의 정보채널 카테고리리와 1백여개 이상의 채널 섹션 디렉토리를 비롯해 작은모임, 동호회, 채팅, 게임, 넷시티 등이 운영되고 있다. 네띠앙의 의미는 네트워크(network)에 인종을 의미하는 접미사인 ian을 붙여 만든 조어로 네트워크 인종, 즉 네티즌 = netian 이라는 뜻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만든 국내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네띠앙은 300만 실명회원과 하루 평균 2400만 페이지뷰, 하루 55만 방문객이 사이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20대에서 30대가 압도적이며 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 요즘에는 여성 인터넷 인구가 늘면서 네띠앙 회원의 여성 비율도 급속히 늘고 있다.

네띠앙은 인터넷 정신인 개방, 자율, 협력에 입각한 이용자 참여 중심의 정책 추진,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한 가치있는 관계 조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이라 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역량을 다하고 있다.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표 주자답게 네띠앙에는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251만개의 작은 모임,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네띠앙 작은 모임은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는 모임으로, 개인 홈페이지와는 구분되는 클럽 성격의 서비스로 연인, 동갑모임, 취미가 같은 사람들(원손잡이, 짝눈클럽, 짝궁댕이) 등이 모여있다. 또 네띠앙 동호회 중에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라면동호회, 바보동호회, 사이버 사랑의 모임 등 뿐만 아니라 상식밖의 클럽 등 재미있는 모임들이 활동중이다. 네띠앙은 패밀리 레스토랑 등 오프라인과의 연계를 통해 네띠앙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사람 냄새 나는 사이버 공간...

사람 냄새 나는 사이버 공간을 표방하는 네띠앙은 연중 캠페인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뜻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대니서의 녹색혁명',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서약', '사이버 사랑의 모임' 등 시의 적절하면서도 장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네띠앙의 홍윤선 대표는 "인터넷을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네띠앙의 비전입니다. 네띠앙은 수천개의 「동호회」를 확보한 이용자 간의 결속력이 강한 커뮤니티일 뿐 아니라, 의식이 비교적 진보적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훈훈한 이웃사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http://donor.or.kr>)은 '네띠앙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캠페인이며 현재 7000여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하고 있다.

네띠앙의 사이버 사랑의 모임은 보육원 등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PC를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줌으로써 이들이 사이버 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이 운동은 현재 1,2차 행사를 통해 전국 148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으며 오는 7월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한다. 네띠앙은 '사이버 사랑의 모임' 운동으로 구축된 아동복지시설의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시설 아동들과 후원자 간의 '사이버 가족'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의 직접적인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띠앙은 네티켓 운동을 전개, 단지 오락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인터넷을 기본 예절이 살아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새롭게 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네띠앙 수익모델...

네띠앙은 기존의 커뮤니티 서비스 노하우를 매출로 이어가고 기업 간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다. 네띠앙의 제휴 프로그램인 아이네띠앙비즈(i-NetianBiz)는 사이트 링크로 끝나는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네띠앙측이 웹사이트는 물론 보안, 인증, 결제 솔루션을 두루 갖춘 전자상거래 시스템까지 구축해 주는 밀착된 협력관계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모델이다.

네띠앙은 올해 말까지 아이네띠앙비즈 참여업체를 현재의 150여개 업체에서 500~100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띠앙은 하나의 ID로 모든 협력업체의 사이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싱글사인온 체제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웅진닷컴, 메디슨과 함께 인터넷 교육벤처를 설립, 기존 오프라인 상에서 전문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운영,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솔루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띠앙은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아파트 전문회사 "아이시티로"의 인터넷 업체로는 유일하게 주사업자로 참여하여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 구축,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아파트 구축에 필요한 제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네띠앙은 300만명이 넘는 실명회원을 갖고 있어 다른 인터넷 업체와는 차별되는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또 향후 오프라인 기반의 전문 콘텐츠 업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제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프리미엄 콘텐츠의 유료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지금 네띠앙에서는...

네띠앙은 6월 현재 실명 회원 300만, 커뮤니티 251만개 등으로 커뮤니티 분야 1위 자리를 굳히고 7월부터는 아시아 메이저 포털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서비스의 규모성과 안정성 추구, 기술개발력 강화, 전략적 제휴 다변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사용자 지향 서비스 추구, 효율적인 마케팅 등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올 연말쯤에는 500만 실명회원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네띠앙은 안정성과 규모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미국의 Critical Path社(크리티컬 패스), 한국 EMC 등 세계적인 회사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글로벌 이메일 솔루션을 구축, 향후 1억명 이상 유저 규모의 사용자를 대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네띠앙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 차원을 넘어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권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솔루션을 확보, 본격적으로 웹메일 호스팅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뿌리로 하고 있는 네띠앙은 커뮤니티를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권, 보험, 멤버십 카드 등 금융 서비스와 1318, 2030, 미시, 전문직 등 타깃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에는 검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